**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1-10절**

**1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3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4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9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Advent)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즉 교회의 달력은 기다림의 절기인 이 대림절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과 함께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데이트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기다림은 더 이상 행복한 일만은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인내를 요하는 고통의 시간으로 인식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질문하는 구절과 만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13:1).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고도 왕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상황이 곧 하나님의 무관심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영원히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런 얼굴을 뵈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래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기다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그녀의 오랜 기다림의 끝에 마침내 봇물처럼 터져 나온 고백입니다. 1절에서 그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의 기쁨이 큽니다.”

우리는 어떤 대단한 믿음의 거장으로부터도 기다림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들의 삶의 길은 내가 따라가기에 너무 높아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도 오름직한 작은 믿음의 동산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 경험한 기다림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평범한 듯 보이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에 새로운 빛을 던져줍니다.

옛날 이스라엘 땅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브닌나와 그 자녀에게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나에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한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시샘한 브닌나가 그녀를 괴롭히고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습니다. 그 때마다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한나는 가족들과 더불어 실로라는 곳에 제사를 드리러 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쩌면 불과 몇 시간 전에 브닌나로부터 또 한번 속상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부둥켜안고 한나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그 성전에서 그녀는 이미 같은 내용의 기도를 수없이 드렸을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했던지,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그녀가 술취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마침내 한나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 실로의 성전으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 술 취한 듯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때 아이를 낳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약속 드린 대로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일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나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결핍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결핍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속 한나와 브닌나는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괴로운 상황이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핍의 고통 속에서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브닌니와 한나가 달랐던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브닌나는 이 문제의 상황을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 문제의 원인이 한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쟁자에게 화풀이합니다. 그것이 손쉬운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어서 그녀는 남편을 향한 기대도 접고 오직 자식에게만 집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결핍의 자리를 눈에 보이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뒤에 더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상황을 초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똑같은 말이 6절에서 한번 더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러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그저 한 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문제의 상황을 초래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물고늘어지는 것은 분명 적절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을 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지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지나봐야 알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혹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습니다. 결핍의 상황을 초래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 결핍의 줄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는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있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핍이 곧 기다림은 아닙니다. 한나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참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구하는 그것이 주어질 수 있는 곳, 혹은 그것을 내게 주시지 않았지만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을 끊임없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핍의 상황 속에서 바르게 기다린다는 뜻은 그 문제의 상황을 내가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손쉽게 종결 지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본문 3절에서 한나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많은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내가 교만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혼자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힘든 일이지만, 한나의 기도는 이러한 기다림의 삶이 주는 유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2:5,8)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기다리는 자에게 결국 주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기다림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줍니다.

한나는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만 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기도는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런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 걸까?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걸까?”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이 마음속 솔직한 질문들은 결코 불경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의도하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실제로 그녀의 계속되는 그 기다림의 기도는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있던 그녀의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점차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서원기도를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1:11)

지금 그녀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받게 되면 그 받은 것을 도로 다 내어드리겠다는 식의 이상한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녀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자신의 전 존재를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나를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나로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십시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당신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그녀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고통스런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는 가운데, 그녀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형성되었습니다.

본문 2절 이하에서 한나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전에 그녀는 자신에게 결핍된 것으로 인해 흔들리고 힘들어했지만, 이제 그녀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그녀의 기도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달라는 기도였지만, 이제 그녀의 기도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2:6-7,9)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줍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계획이 숨어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받아 다시 온전히 내어드렸던 아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경은 그들이 살던 사사시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21:25)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숭배와 패륜적인 죄악이 사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것을 따라 살기보다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행함에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히려 더 무력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조용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결핍의 상황을 기다림의 기도로 바꾼 한 여인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과 헌신의 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성전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어 사무엘은 누구도 부인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순간 우뚝 섭니다.

사무엘상 3장 19-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삼상12:23)

한나에게 주어졌던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그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 여인의 고통스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는 준비를 진행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 고통스런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장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들의 뿔을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 해를 시작하며 마음에 가졌던 소원과 기도제목이 다들 있으셨을 줄 압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한 것들 중에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여전히 소원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구한 그것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올 한해 기도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많이 채워지게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는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더욱 채워지게 되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인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핍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기다림의 시간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고통스런 기다림의 시간을 영양가 있는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때, 머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런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고통스런 결핍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기도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온전히 쓰임 받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